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9. 10. 31.(목) 총 3매(본문 2)	
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상수, 사무관 강정현, 주무관 강경훈 • ☎ (044) 201-4244, 4248, 4247	
보 도 일 시	2019 11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3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실제 상황에서도, “황금시간 안에 중요한 행동(골든액션)을” 31일 김포공항서 27개 기관 합동 항공기 복합재난사고 대응 현장훈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31일(목)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관계기관* 합동으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.

* 국토교통부, 서울지방항공청, 한국공항공사, 제주항공, 공항소방대·강서소방서 및 인근 병원, 세관·출입국·검역 등 27개 기관(업체), 300여명 참석

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(10.28~11.1)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악기상(뇌우)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순간돌풍으로 인해 공항 담장과 부딪친 후 공항 외곽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와 충돌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,

○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, 구급차, 헬기 등 참여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총 동원하여 화재진압, 응급 구조·후송 및 사고수습·복구까지 사고처리 전반에 대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다.

○ 특히, 이번 훈련은 도로 위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발생 주변도로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등 질서

유지 방안에 대한 훈련과 사고 항공기 누유로 환경오염 발생 시 방제작업에 대한 훈련을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도 점검하였다.

- 이 자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선 사고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게 최우선”임을 강조하며,
 - “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‘황금시간(골든타임)’ 안에 ‘중요한 행동(골든액션)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,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평소 훈련한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개인별 임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향후에도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항공기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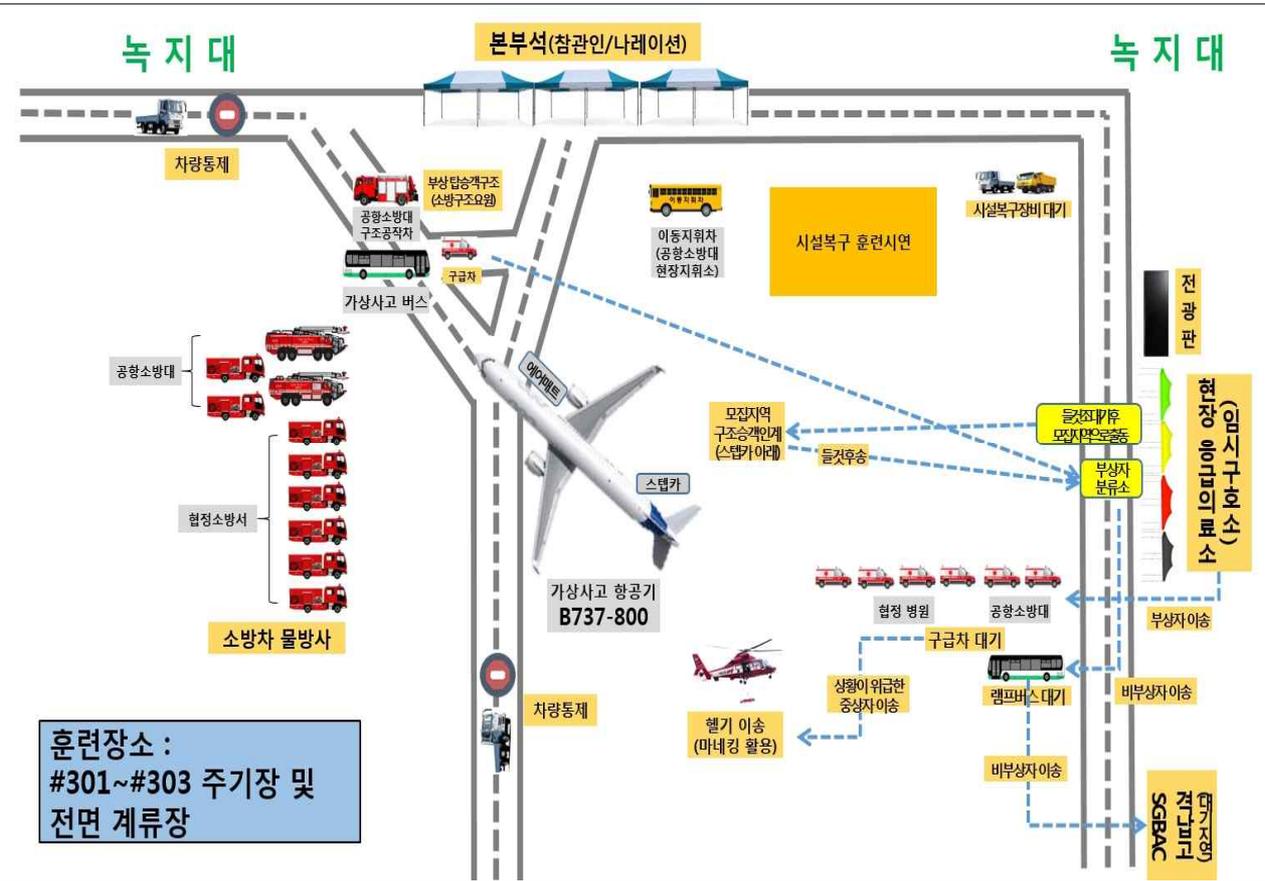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강정현 사무관(☎ 044-201-42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훈련장소 및 현장훈련 배치도



훈련장소(국제선 계류장)



훈련장소 :
#301~#303 주기장 및
전면 계류장

현장훈련 배치도